



싱가포르에서소 전시장

**싱가포르에어쇼  
성황리에 끝나**

매년 짝수 해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sian Aerospace '96행사가 지난 2월 6일 창이국제공항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돼 11일까지 계속되었다.

동 행사에는 보잉, 에어버스등 36개국 9백29개업체가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삼성항공, 서울항공, 한국로스트왁스,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이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벌였다.

동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2월 6일 오후 싱가포르공항에 착륙한 미국의 핵무기운반 폭격기 B2 스텔스기로 항공기관사 교체를 위해 착륙하여 30분동안 언론과 항공관계자들을 위해 그 모습을 공개했다. 상업용항공기로는 보잉 777기의 신형모델인 200시리즈가 선보였다. 이밖에도 소형기 및 헬리콥터 시장을 놓

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세스나(Cessna)와 다소 Falcon, 벨(Bell)과 시콜스키(Sikorsky)가 각각 Cessna Citation X와 Falcon 900EX, Bell 407 및 430과 S76MK II 등 신기종을 내놓고 아시아시장을 향한 한판승부를 벌였다. 이와함께 영국공군의 공중비행 시범도 큰 인기를 누렸다.

삼성항공은 현재 조립생산중인 프랫앤티트니(P&W)사의 F-16전투기 탑재엔진(모델 F110)과 2000년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중인 KTX-2 추소모형을 전시했다. 또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오는 10월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소재)에서 열릴 서울에어쇼 홍보용 부스를 차렸고 항공기부품 정밀가공분야에서 세계수준을 자랑하는 한국로스트왁스도 참가했다. 또 베트남에서 소형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항공도 제트스트림기 41(좌석 21개)을 전시하고 판촉활동을 벌였다.

**현대, 우주 항공사업 본격진출  
한라중공업 MD-95사업  
전격 인수**

현대그룹이 우주 항공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현대그룹은 지난 2월 13일 그룹의 항공기 제작부문을 담당하였던 현대기술개발의 회사명을 현대우주항공(주)로 바꾸고 미국 맥도널더글라스(MD)사의 MD-95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문 현대우주항공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97년 하반기부터 총 11억달러 상당의 MD-95 주날개 부분을 설계, 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D-95프로젝트는 당초 한라그룹이 MD사와 상당수준까지 협의를 진행하다가 내부 사업부문 조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현대가 이를 주관해 줄 것을 제의하였으며

현대는 이를 수락, 사업권 양도와 관련한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현대그룹은 이와함께 미국 펌코(PEMCO)사와 합작법인을 설립, 민간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수리개조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있으며 세계수요의 10%가량인 16억 달러규모의 작업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日, 차세대 소형여객기 개발  
봄바르디어사와 접촉**

일본은 통산성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주축이 돼 추진해오던 소형제트 여객기(YSX)계획과 관련, 미 보잉사와 공동개발하려던 방침을 사실상 포기하고 새 파트너로 캐나다의 봄바르디어사와 접촉을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샤가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잉사가 YSX계획과 한중중형항공기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할 계획을 세우자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봄바르디어사등 제3국의 합작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94년부터 보잉사와 함께 1백인승 여객기의 기체연구및 시장조사를 벌여 왔었다.

일본은 이에따라 1백인승 여객기개발을 둘러싼 보잉사와의

사업성 조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동시에 75인승 여객기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 오는 7월께 본격 개발을 위한 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봄바르디어와 민항기 공동개발등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은 YSX계획에 대해 채산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삼성항공, 13인승  
소형항공기 도입 추진**

삼성항공은 프랑스의 다소(Dassault)사로부터 13인승 소형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삼성항공은 펠컨 900B기 1대를 오는 4월께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기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삼성항공은 이 소형항공기를 국내와 해외사업장간의 삼성그룹 임

직원 및 물품수송과 올해 10월에 있을 서울에어쇼 기간 중의 VIP수송, 중형항공기 개발과 관련된 연구용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항공기의 가격은 2천3백만달러 수준이다.

국내 기업중에는 현재 쌍용정유가 1대, 동아건설이 1대, 대한항공 2대 등 3개기업이 모두 4대의 소형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인니, 여객기 자체개발  
20억불 투자 N2130개발**

동남아국가중 항공기 제조산업의 선두주자인 인도네시아는 오는 2002년 자체개발한 제트여객기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하비비 IPTN회장(과학기술처장관 겸임)은 N2130으로 명명될 제트여객기를 자체 기술로 200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탑승인원은 1백30명, 속도는 시속 9백km라고 말했다. 이는

IPTN이 교통환경의 변화로 오는 2020년까지 모두 4천5백대의 중형항공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며 동 기종의 개발을 위해 20억달러를 투자하여 IPTN에서 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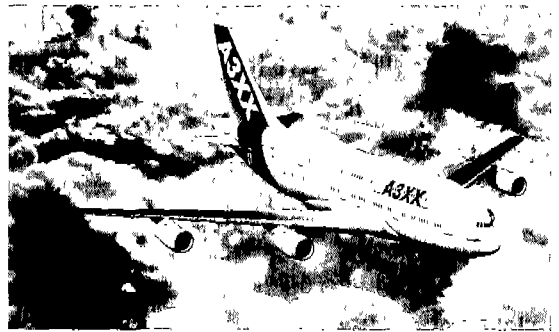
동사는 지난해 처음 N-250 항공기(50



삼성항공이 도입할 Falcon 900B



아심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N2130모형



유럽형 수퍼 점보기

인승) 독자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태  
동기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항공기  
제작산업에 이정표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동 사는 지난 20년전부터 국가적  
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  
으며 외국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스  
페인의 CASA와 35인승 CN 235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며 NBELL 412  
NBO 105등의 헬기도 100대이상 제  
작하는 등 많은 기술들을 축적해  
왔다.

**英·佛·獨,  
초대형여객기 공동개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  
요 3개국은 미 보잉사의 B747에 대  
항하기 위해 500~600석 규모의 유  
럽형 수퍼점보여객기를 개발, 늦어  
도 오는 2003년까지 제품을 출하키  
로 했다고 베르나르 폰 프랑스교통  
장관이 발표했다.

폰 장관은 이날 유럽 3개국 교통  
장관과 주요 항공기제작업체 대표  
들이 지난주 런던에서 비공식회의  
를 통해 이같은 사업계획에 합의하  
고 이를위해 1백40억달러 규모의  
연구자금을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

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 4개  
국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에어버스사가 이 수퍼점보여객기사  
업을 주도해야한다는데 3개국은 의  
견일치를 봤으며 이번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오는 5월 관계자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 3개국은 지난해에도  
수퍼점보여객기 개발계획을 추진했  
으나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유보시킨 바 있다.

**美 보잉-MD사 합병협상 결렬**

미국의 맥도넬 더글라스(MD)와  
보잉사간의 합병 협상이 결렬됐다  
고 뉴욕 타임지가 1월 17일 업계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타임즈는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  
을 석권하고 있는 보잉과 각종 전  
투기생산이 주종인 MD의 완전한  
합병은 부분적으로는 양사의 다른  
기업문화풍토와 연방정부의 기업  
독점금지 가능성 때문에 모험을 건  
커다란 도박으로 간주돼 왔다고 전  
했다. 그러나 양사는 두 회사가 국  
방예산의 삭감 추세에서 기업 이윤  
을 추구하면서 살아 남으려고 노력

하고 있어 헬리콥터 분야 등의 일  
부 합병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업계 소식통은 양사간 합병 협상  
의 최대 장애는 최근 수년간 보잉과  
유럽의 컨소시엄인 에어버스 인더  
스트리와 더불어 치열한 수주 경쟁  
을 벌여온 MD의 민간 항공기 제작  
분야에 대한 자산 평가였다고 밝혔  
다.

이들 양사간의 합병협상을 계속  
추적해온 뉴욕 BT증권의 윌포강  
데미쉬씨는 "세계 시장에서는 강력  
한 협상 영향력을 갖춘 제한된 수  
의 기업존재가 바람직스럽다"면서  
양사는 다시 간헐적으로 협상을 재  
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항공기 제작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오고 저가의 항공  
기를 구매해온 아시아 각국들은 이  
들 양사의 합병 결렬로 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두 거대 회사의 합병이 실  
현될 경우 이미 세계 항공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보잉은 세계  
제2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

에 대해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합병협상설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보도됐으나 당시 양 회사의 대변인은 이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다.

### 중국, 금년내 에어버스기 40대 구매 검토

이붕(리펑) 중국 총리는 지난 2월12일 중국이 올해 약 40대의 에어버스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100석 규모의 항공기 공동개발을 위한 유럽 협력업체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중국 민간항공사들이 에어버스 A310기 30~40대와 A340기 6대를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와함께 한국과 중국 간 합작사업에 또 다른 협력업체를 참여시켜 개발할 예정인 100석 규모의 항공기 프로젝트와 관련, 유럽 컨소시엄·에어로 인터내셔널 아시아(AIA)를 유력한 참여업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MD사, MD-11개량기로 장기 계획 발표

미 맥도넬더글라스사(MDC)는 보잉(Boeing) 747-100/200의 대체시장과 급부상하고 있는 장거리용 항공기시장에서 보잉사와 에어버스사(Airbus)의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MD-11 개조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Flight Intl지가 보도했다.

MDC는 "우리는 777과 Airbus기종과 경쟁하기 위해 중요한 몇가지를 변형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MD-11의 주문잔량이 21대로 떨어지면서 MD-11의 개량에 대한 호기로 판단된다고 동지는 보도했다. MDC측은 MD-11의 생산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공격적인 무역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풍동실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MD-11의 중요한 변형중의 하나는 바로 주날개의 재설계인데, 기존의 MD-11의 주날개는 DC-10의 것을 그대로 채용했었다. 동사는 8가지의 다른 주날개 형상을 디자인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가지를 선택하여 일정면이나 가격, 무역방법에 대한 연구를 금년 봄경 마칠 것이라고 말하고 기존 MD-11의 주날개도 효율적이었으나 이번에 개량될 주날개는 성능이 더 향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량될 MD-11의 주날개는 가로 세로비와 날개면적이 증가될 것이라고 동지는 보도했다.

또한 에어버스사의 A340-8000 보잉사의 777과의 경쟁을 벌이기 위해 동사는 MD-11의 좌석수를 약 20석 늘리고 운항거리를 늘렸으며 최대이륙중량도 현재 286톤에서 305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에 개량되는 MD-11은 오는 99년부터는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항공기 시장에서 동사의

신기종 출시때까지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월드에어웨이즈(World Airways)와 가루다 항공(Garuda Indonesian Airlines)사는 MD-11의 운항거리를 늘린기종(MD-11ER)을 인도하기로 했으며 지난 94년 2월에 주문한 상태이다. MD-11ER의 운항거리는 13,300km이다.

### HOPE 착륙시험 공개 일, 무인우주왕복선용

일본의 무인 우주왕복선인 HOPE의 자동착륙 예비시험이 공개되었다.

동 시험은 헬리콥터를 이용 실험기를 공중으로 올린 뒤 착륙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실험기는 ALFLEX라고 이름지어졌다.



착륙시험기를 매달고 올라가고 있는 실험기의 모습